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행복 만들기 성경: 시편 32편

Tag: 회개,정죄,한국교회,건강,행복,구약성경,시편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6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8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9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10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11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
음이 정직한 너희들이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32:1-11)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불행한 삶이 얼마나 두려운가. 주변에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 불행이 자기에게도 미칠 것을 두려워한다. 자신에게 불행이 닥쳐도 보통은 그 불행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불행을 숨기려고 한다.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행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찬사를 보내고 응원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다. 요즘 한국의 교인들은 섯불리 돕는 것도 주저한다. 왜냐면 신중해졌기 때문이다. 돕는 것이 성숙해졌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섯행되어야 할 섯행이다. (先行 善行) 카톡이나 연락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2차적인 섯행이다. 관심을 가져 주는 것. 3차적인 섯행은 함께 돕는 것.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 삶의 질이 나아졌지만, 행복지수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측이 분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우리 주변에 불행의 요소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의 질은 높아지지만, 여전히 그 높은 곳에도 불행은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즉 삶의 질이 높아진 상태에서 찾아오는 불행을 아직 예측하지 못했을 때 불행의 덫에 걸리기 쉽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부자가 되면 사기꾼들이 많이 몰려든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질병에 대한 노출이 많아진다. 공부를 많이하면 근심이 늘어난다. 등등.

삶의 질이 높아져서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그렇다고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삶의 질이 높아졌을 경우 해결되는 불행들은 대단히 많지만, 문제는 여전히 아직은 불행에서 탈출할 수

있을만한 수준으로 영적인 질이 높아지지는 않았다는데 있다.

핵심은 영적인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모든 불행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곧 거짓이다.

반대되는 명제도 가능하다. 영적인 기준에 의하면 모든 행복에는 진리라는 공통요소가 존재한다.

오늘 성경말씀은 거짓과 진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 복이 있는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가려졌다는 것을 의미함.
- 여기에서 가려졌다는 표현은 내 스스로 죄를 덮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를 가려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리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선언하였다.

2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 마음에 간사함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죄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변명하고, 축소시키고, 책임을 전가하고, 발뺌하고, 모른척하고,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죄가 아니라 자유의지라고 주장하고, 세상에 있는 온갖 이론들을 둘러대면서 정죄를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불행하다. (동성애자들의 주장과 비슷하다.)
-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도 굳이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니 정죄하시는 것이다.

3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죄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하는 것은 죄를 시인하지 아니한다는 것.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함. 사람의 몸은 거짓말에 오작동하게 되므로 뼈가 쇠한다.(약해진다)

-아마 뼈에서 피를 생산해 내기 때문일 것이다. 내 안에 거짓이 있다면 피는 생산이 활발하지 않게 되며, 거짓이 여전히 지속될 때 하는 수 없이 나쁜피를 생산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민해져서 백혈구를 과다생산하게 되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

4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진액이 빠진다는 말은 탈수, 탈진이 되었다.

-체액이 빠져서 마른다.

-문제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는데 있다. 이 말은 영적인 감각이 작동되어서 주께서 나에게 회개의 스트레스를 주신다는 뜻이다.

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제 스스로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다.

-왜 자복이 어려운가? 거짓 때문이다. 거짓이 욕심을 만들고, 자존심을 만들고, 부끄러움을 만들고, 두려움을 만들고, 울분을 만들고, 원망을 만들기 때문이다.

-왜 자복하는가? 사랑과 진리 때문이다.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신다. 겸손히 그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눈빛이 중요하다. 내가 욕심을 포기한다는 눈빛도 중요하다. 나의 앞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심정도 중요하다. 그래야 자복할 수 있게 된다.

-자복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며 삶을 돌이킬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덮어주신다. 이것이 부끄러움을 면하는 방법이다.

6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에 여전히 삶의 질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한 삶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 (이것은 삶의 질과 무관한 방법이다. 다만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이 방법을 소홀히 한다는 맹점이 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 기회를 만들라. 미리 선행을 하라. 미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과 헌물을 마련하라. 예배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핑계를 대고 주께 기도할 기회를 만들라. 기회를 만들었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자백하라.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재앙이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불행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7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8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9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10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11 너희 의인들이여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이여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32:1-11)

-그러므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기원한다. 아멘.

16 하나님께서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욥23:16)

10 내 생명이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
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시31:10)

3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시32:3)

3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
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시38:3)

18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하더니 저주가 물 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
며 기름 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시109:18)

4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
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잠12:4)

30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잠
14:30)

22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
라 (잠17:22)

<찬양예배>

제목 : 시장경제 이야기 성경: 마태복음 25장 28절

Tag: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마25:28)

최승노박사

1.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 시장과 가격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홀로 자연속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로빈슨 크로소 ; 자연주의자. but 그는 자연을 탈출하고 싶어한다.

1인경제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

-혼자서 자급자족, 혼자서 배를 만든다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고 받을 때 훨씬 효과적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

-경제란 본질적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교환이 경제현상의 본질이다.

-클럽을 농가와 교환한다. (오스트렐리아에 있었던 사건; 클럽-만년필-난로-뮤지션 공연 쿠폰-...집)

-교환을 통해서 경제는 좋아진다.

-핀 하나 만들 경우 48공정. 분업화 하면 생산성이 20배 이상 늘어난다.

-분업화, 특화, 조립 등을 통해 경제는 발전한다.

-직업의 수가 많아진다. 분업이 발전하고 직업의 수가 많아진다. 큰 도시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한다.

- 중심적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은 가격 때문이다.
- 가격은 시장의 본질이다. 가격을 통제하면 안된다.
- 가격을 통제 또는 조정하려고하면 새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분업이나 특화가 방해받게 된다.
- 한국전력의 전기세; 가격이 통제됨. 문제가 발생함. 시장왜곡, 전기세가 싸니 무분별한 소비가 이어짐.

2.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 인센티브 제도

- 가지고자 하는 욕망. 시장의
- 어떤 제도에서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은 첫번째 소비에서 만족도가 크다.
- 선택하는 행위가 경제의 기본행위
- 인센티브;<심리>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특히 종업원의 근로 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높이는 것을 이른다. ‘유인 책’, ‘조성 책’으로 순화.
- 인도;영국의 식민지 시절, 총독부가 코브라 퇴치 목적으로 코브라를 잡아오는 자들에게 보상금 준다. 코브라가 줄지 않음. 오히려 코브라를 기르기 시작함.
- 사람의 욕구를 어떤 제도로 통제하는가?
-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실패할 수 있다. 욕구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합리적으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 프로야구는 7년 이후에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함.
- 핵심 에너지원은 경쟁임

-모리셔스 섬의 예; 도도새. 너무 편해서 날아다니지 않음, 똥똥해 짐. 결국 멸종함.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됨. 사람들에게 잡혀 먹힘.

-박정희대통령은 수출 성장 위주로 함. 수출에 성과가 있는 기업에게는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해 줌.

3. 정의로운 체제, 자본주의 - 경제 자유

자유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 + 시장경제 시스템의 준말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속성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속성은 시장경제 시스템

자본주의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다른 체제 보다는 가장 나은 시스템이다. 가장 덜 나쁜 시스템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더 나아질수록 우리의 삶도 더 나아졌다.

과거 설탕은 귀족들만의 것이었으나 자유로운 무역이나 경제발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되었다.

대중적으로 웬만한 사람이면 과거의 특권층만 누렸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자본주의의 바탕의 기본 개념은 개인주의이다.

집단주의가 강해질수록 개인의 삶은 위축된다.

예술이 경제화 되어 산업이 되면서 예술은 전체 시민들이 즐기는 것이 되었고 예술가들은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스포츠맨도 그렇다.)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함 freedom -공짜라는 의미도 있음.

자유는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이거나 우선적인 가치가 아닐 수 있으나, 국가나 사회가 개인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이다.

국가나 법률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가치는 자유이다.

4. 정의로운 체제, 자본주의 - 법치와 신용

정치자유-민주주의

경제자유-시장경제

시장경제자유-바탕 위에 정치적인 자유가 꽃을 피울 수 있다.

민주주의만을 외쳤던 나라들(이집트, 이라크)

중동에 민주화의 봄이 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왜 계속 혁명에 실패하는 것일까? 정치적인 자유를 아무리 애써도 시장경제가 바탕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다.

대한민국은 70-8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고도성장을 일구어내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해졌다.

경제자유가 높은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높다.

경제자유와 하위10퍼센트 계층의 소득수준도 경제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가장 높다.

칠레의 피노체트 정부,-쿠데타로 정권 잡음. 그후 경제자유 추진.
그 결과 독재정권이 흔들리게 됨. 결국 민주화 과정을 겪게 됨.

그러나 독재자들이 경제자유를 높이지 않으면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
하기 때문에 독재정권이 지속됨.(북한)

자본주의가 정의로운 이유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은 재산권이다. 자기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
는 자유. 소유권, 처분권, 사용권-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번영
하며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된다.

재산권을 지켜주는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그 사회는 발전한다. (과거
조선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가난하고 게으르게 살았다.)

자기것이 지켜진다는 생각, 미래에는 더 많은 재산을 쌓을 수 있다
는 생각이 발전을 촉발한다.

러시아에는 재산권이 지켜진다는 생각이 없다. (농노사회, 공산사회,
자본주의 체계 도입 이후에는 조폭사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발명은 다른 나라에서 더 먼저 일어남.

영국에서는 재산권(지적 재산권 포함)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작동하
고 있었다.

중국 모택동 시절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감. 집단 농장체계를 도입
한 이후에 식량문제 해결하게 됨.

자본주의는 남의 것을 쉽게 빼지 못하게 하는 것.

재산권 보호는 정부의 역할이다. 법적 장치이다. 신체적인 위해나
폭력도 막아야 한다. 계약이 지켜지는 문화도 중요하다.

일부 권력자들이 법을 남용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법을 만들어서 개
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정의를 해치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자유가
수준을 높이는 것이 부패를 줄이는 좋은 길이 된다.

법치가 발전하면서 연고주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신용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자본주의를 성숙시키고 발달하게 한다.

신용을 잘 지키고 정직한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는 발전한다.
물가가 안정된 사회가 자본주의가 성숙한 사회의 특징이다.
관용도 중요함. 고소득자에 대한 시기심.
소수를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현상. 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성숙한 사회가 된다.

5. 사회주의는 왜 실패하는가? - 반자본주의

월 스트리트, 1:99, 양극화 논리. 부익부 빈익빈. 가난에 대한 피해의식, 울분을 정치적 에너지로 삼고자 함. 그 배경이 평등주의.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는가? 똑 같이 잘살아야 하지 않는가?

양극화;소득격차. 이것은 부정적이지 않다.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는 사회는 격차가 미미함. 자본주의 사회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진다.

부익부 빈익빈;부자만 부자가 될 수 있다. 과거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런 말이 통함.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확한 이론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줄어들었다. 극빈층의 비율이 감소함. 현재는 5% 정도.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양극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부익부 빈익빈 논리는 과장된 표현이다.

자본주의로 인해서 소득격차가 발생할수는 있어도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한다.

청교도 이주민들이 미국에 처음 정착할 당시 공동체 생활을 시도했

다. 하지만 3년이 채 되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이타심이 강한 사람들,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라도 각자의 재산권을 인정하게 됨. 그러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실험을 수십년동안 함. 소련 60년, 북한은 70년이 넘도록.

중국은 등소평때 70년 후반에 포기함. 그 이후 중국은 상당히 나아졌다.

베트남의 호치민. 대단히 겸손하고 리더십이 뛰어남. 소박함. 부정부패를 싫어함. 좋은 리더임. 그러나 장기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함.

좋은 리더의 조건이란 소박, 겸손, 청빈 은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이 아님.

첫번째 조건은 자유민주주의시스템의 수용이다. 즉, 방향이 올바라야 한다.

잘살면 뭐하나 행복해야지.

소득이 늘어난다고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는다.

행복이란 경제성장과 관계없이 문화, 종교, 관계, 심리적인 것이지 국가나 지도자의 책임이 아니다. 즉 행복이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6. 사회주의는 왜 실패하는가? - 개입주의

앙드레 지드(사회주의자) 그러나 러시아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바꾸게 됨.

사회주의의 핵심은 계획을 잘 짤 수 있다는 오만함.

계획경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계획주의 경제는 현실에서 대부분 실패함.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도 사회주의 함정은 늘 발생함.

정부는 계획을 세우기 좋아한다.

단통법이 좋은 예.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방식의 역사는 깊다.

1770년 벵갈(방글라데시 이전)정부가 기근으로 인해서 쌀의 가격과 수급을 통제함. 30% 국민이 굶어 죽음. (암시장이 생겨남.)

1860년에 또 다시 같은 현상 발생. 그러나 통제하지 아니함. 기근이나 아사가 줄어들지 않음.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오히려 피해를 발생시킴.

특히 우리나라에서 통제경제에 대해서 당연시함.

박정희 대통령의 5개년 경제개발. 이것이 통제경제. 그러나 이것은 소련의 방식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따라함. 그러나 모든 나라가 실패함. 오직 박정희대통령만 성공함. 박정희 대통령은 경쟁정책을 실시함.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고, 사회주의 정책을 사용하지 않음. 망하는 기업을 도와주지 않음. 잘하는 기업을 오히려 도와줌. 자유와 창의 경쟁을 중요시함.

뉴딜정책. 정부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줌. 자본주의 국가 내에 들어와 있는 사회주의 정책.

프랑스 학자 바스티아의 깨진 유리창 이론.

평등을 앞세우는 복지정책은 경쟁을 하락시키고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낳는다.

중산층이 줄어드는 기간;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정책을 추구하고 부의 재분배를 우선시 했던 기간에 특히 많이 일어남.

북한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주의정책을 도입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배급정책, 평등정책은 잘못되었다.

이런 평등정책이 지속되면 북한과의 통일은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러나 북한에 경제자유화를 먼저 시행하면 된다.

7. 작은 정부가 답이다

8. 작은정부가 답이다. - 큰시장

9. 세계화, 열린사회로 가는 길 - 개방성

10. 세계화, 열린사회로 가는 길 - 반세계화